

白村江戰鬪 이전 倭國의 遣唐使

-唐의 서북방 정세변화를 중심으로-

서 영 교*

- I. 머리말
- II. 唐太宗의 東突闕 제압과 1차 遣唐使
- III. 唐高宗의 즉위와 2·3차 遣唐使
- IV. 倭國의 皇帝 璽書 默殺과 唐의 (4차)倭使 監禁
- V. 맺음말

국문초록

倭國은 섬나라였지만, 三國의 사절들을 통해 중국의 정세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623년 귀국한 大唐留學生 惠日이 당과의 교류를 건의했지만 왜조정은 무관심했다. 隋末 내란을 막 수습한 당나라는 강국이 아니었다. 특히 東突闕에게 약자였다. 626년 쿠데타로 즉위한 唐太宗도 東突闕에 막대한 재물을 주고 강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다. 627년 薛延陀와 回紇이 東突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頡利可汗의 군대 일부를 격파했다. 동시에 몽골고원에 天災(dzud)가 일어나 東突闕의 수많은 가축들이 죽었다. 이듬해 奚·靺·契丹족과 인근의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 syk367@naver.com

고구려도 당에 줄을 썼다. 628년 9월 營留王(建武)이 당에 封域圖를 바쳤다.

630년 2월 李靖이 陰山에서 頡利可汗의 주력을 격파하여 東突厥을 완전히 무너트렸다. 3월 유목군장들이 스스로 唐太宗에게 ‘天可汗’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630년 3월 奈良에 도착한 고구려 사신은 이 소식을 倭國에 전했다. 막 즉위한 舒明天皇이 같은 해 8월에 1차 遣唐使를 파견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31년 倭國사신은 唐太宗을 알현했고 귀국길에 당의 遣倭使 高表仁과 동행했다. 그러나 高表仁은 의례를 두고 倭國 왕과 다투었고,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로부터 23년 후 倭國은 갑자기 2차례(653년 2차·654년 2차)에 걸쳐 당에 사신을 파견한다.

649년 5월 26일 唐太宗이 죽고 아들 李治가 즉위했다. 唐高宗은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상속받을 수 없었다. 주변 강국들이 일어섰다. 649년 10월 토번왕 승젠간포가 唐高宗의 외삼촌 長孫無忌 등에게 불충한 짓을 하면 장안에 군대를 보내 토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阿史那賀魯는 1년 6개월 만 西突厥의 재통일을 완수했고, 타림분지와 파미르 고원을 넘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고구려 역시 동몽골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자 당은 주변 나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베풀어 상황을 호전시키려 했다. 唐高宗은 토번에게 雜綵 3천단과 養蠶 종자 및 술·맷돌·종이·먹을 만드는 장인들을 보내 주었다. 西突厥과 가까운 龜茲國에도 자치권을 주고 물자를 증여했다. 고구려 배후에 위치한 倭國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터였다.

倭國의 孝德天皇은 호기를 놓치려고 하지 않았다. 653년 夏4월 倭國은 2차 遣唐使를 파견했다. 그들은 이듬해 황제가 내린 다량의 문서와 보물을 가지고 귀국했다. 孝德天皇은 654년 2월에 3차 遣唐使를 파견한다. 唐高宗을 만난 倭國사절은 예상치 못한 唐高宗의 璽書를 받았다. 신라가 백제·고구려로부터 침공을 받아 위급하니 가까이 있는 倭國이 군대를 보내 구원하라는 것이다.

655년 倭國 사신이 귀국했을 때 150명에 달하는 대규모 백제 사절단이

와 있었다. 璽書에 대한 관심은 고구려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56년 8월 8일 고구려는 倭國에 81명에 달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바로 다음 달에 倭國의 답사가 고구려로 파견되었다.

倭國은 고구려·백제와 돈독한 관계를 지속하여 황제의 뜻과 배치되는 길로 가고 있었다. 그것은 唐帝國으로 하여금 倭國에 대한 적개심에 눈을 뜨게 했고, 결국 신라와 倭國의 관계도 냉각되었다.

657년 12월 중대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었다. 蘇定方이 이끄는 당군이 西突闕 주력을 격파하여 당나라가 다시 유일강대국의 자리에 복귀했다. 659년 4월 김춘추는 당에 청병을 했고, 唐高宗은 그해 연말에 백제파병을 결정했다. 마침 그해 말 倭國의 4차 遣唐使가 장안에 나타났다. 12월 3일 직후 칙지가 내려와 倭國 사절들은 장안에 감금되었다. 그들이 백제침공계획을 발설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동안 다자간의 등거리외교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倭國은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줄을 설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 하지만 660년 당이 三國 통일전쟁에 개입하는 전란의 시대가 도래 했고, 倭國은 여기에 휘말리게 된다. 663년 白村江戰鬪에서 倭國은 羅唐聯合軍에 의해 재앙적인 패배를 당한다.

◆ 주제어

唐太宗, 唐高宗, 高表仁, 孝德天皇, 高向玄理, 璽書, 倭國, 遣唐使

I. 머리말

고구려는 619년부터, 백제와 신라는 621년부터 遣唐使를 파견하였다. 倭國은 630년에 가서야 당에 최초로 사신을 보냈는데 동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늦다.¹⁾ 거리상 바다 건너에 있는 倭國이 자주 사신을 파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꼭 필요한 시기에만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倭國의 遣唐使연구는 자국의 선진문물 수요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倭國은 당의 잘 정비된 법식을 배우기 위해, 당의 발달된 문화를 수입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것이다.²⁾ 크게 볼 때 이러한 견해는 틀리지 않다. 하지만 白村江戰鬪(663) 이전 시기 前期遣唐使(1차 [630]·2차 [653]·3차 [654]·4차 [659])는 이후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국제정세 변화의 폭이 어느 시기보다 깊고 거대하기 때문이다.³⁾

본고는 前期遣唐使로 범위를 한정했다. 당시 한반도에서 신라고구려백제 3국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다. 당과 긴밀하게 연결된 신라가 麗濟 양국의 공격을 받고 枯死 직전 상태였다. 수말의 혼란을 극복하고 일어난 唐은 東突闕이 약화되는 628년 이후부터 팽창일로에 있었고, 거대한 힘으로 倭國과 친밀한 고구려와 백제를 압박하고 있었다.

關晃씨는 倭國의 2차-4차 遣唐使 파견 목적이 羅唐同盟軍이 고구려백제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당과 직접 교섭을 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한편 西本昌弘씨는 3차 遣唐使의 파견목적이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倭國이 백제의 입장에 서서 직접 당과 외교절충을 시도하는데 있었다고 보았다.⁴⁾

1) 森公章 『遣唐使の光芒』 角川選書, 2010, 63쪽.

2) 森公章,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 吉川弘文館, 2008.

3) 665년 5차 遣唐使, 667년 6차 遣唐使, 669년 7차 遣唐使는 百濟 주둔의 唐軍과의 交渉이었다.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4) 關晃, 「大化改新」 『岩波講座日本歴史』 2, 岩波書店, 1962. 222-224쪽
西本昌弘, 「東アジアの動亂と大化改新」, 『日本歴史』 468, 吉川弘文館, 1987, 31쪽.
羅幸柱, 「倭國의 弟3차 遣唐使와 百濟·新羅」 『百濟研究』 58, 2013, 29쪽, 42쪽.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이 倭國의 입장에서 물 건너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倭國은 한반도의 나라들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關晃·西本昌弘은 동아시아에서 倭國의 외교적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倭國은 수없이 많은 변방 나라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외교력은 군사력이 받쳐주어야 발휘된다. 당시 倭國이 당에 대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대립구도 속에서 다자간 등거리 외교를 통하여 이익을 보고 있던 倭國이 당에게 적대적인 麗濟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노력을 한들 그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關晃, 西本昌弘, 森公章 등의 연구자들은 前期遣唐使의 각 파견 시점에 당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각에는 唐은 처음부터 강국이었고, 위기도 없었던 帝國이었다. 唐 주변에는 三國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강력한 吐蕃과 突厥이 존재했다. 막 건국한 당의 모습은 어떠했고, 나중에 어떠한 군사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다시 내정의 변화로 인해 어떠한 위기에 처했고, 이러한 변화가 倭國의 사절 파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필자는 倭國이 당과 그 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세변화를 어떻게 인식했고, 倭國의 前期遣唐使가 그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倭國의 遣唐使 그 자체가 내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지만 당의 중요한 정세변화도 고려했을 것이다. 倭國은 三國의 사절들을 통해 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威勢 변화도 인지했다고 생각한다.

倭國은 29년간(630-659) 4회의 遣唐使를 파견하였지만, 결국 당과 적대적으로 돌아섰다. 본고에서는 당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倭國의 遣唐使를 연동시켜 검토해 보겠다. 본문 2장에서 당의 東突厥 제압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630년 倭國의 1차 遣唐使와 그것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3장에서 唐太宗의 죽음이 당제국의 威勢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倭國의 2·3차 遣唐使와 그것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재미미해 보

았다. 4장에서는 唐高宗이 3차 遣唐使에게 준 倭國出兵援新羅璽書에 倭國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659년 4차 遣唐使 감금과 그것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II. 唐太宗의 東突闕 제압과 1차 遣唐使

623년 倭國을 방문한 신라 사절은 불상 1구와 金塔과 舍利, 大灌頂幡 一具, 小幡 12條를 증여했다. 또한 당에서 유학을 했던 倭國 學生들을 데리고 왔다. 惠齊, 惠光, 醫惠日, 福因 등이 그들이다.

惠日이 推古天皇에게 아뢰었다. “唐나라 國學에서 유학을 하여 학업을 이룬 倭國 사람들을 응당 귀국시켜야 합니다.” “大唐國은 法式이 잘 정비된 훌륭한 나라입니다. 항상 왕래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惠日是 그때까지 당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倭國 유학생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권유하고, 당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⁵⁾

惠日是 본래 高句麗人으로 百濟에 귀화하였다가 倭國으로 온 德來의 5세손이다. 才人을 찾던 雄略天皇(418년~479년)의 요청을 받은 百濟가 德來를 倭國으로 보냈다. 惠日是 推古天皇 16년(608), 小野妹子와 福因 등과 함께 隋나라에 들어가 의술을 배웠다.⁶⁾ 惠日이 건의는 곧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권자였던 蘇我馬子が 당에 사신파견을 서두르지 않았고, 이미 입국한 유학생들도 등용하지도 않았다.⁷⁾

그렇지만 당의 法律지식에 대한 수요는 있었다. 그것은 우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624년 4월 어떤 승려가 자신의 祖父를 도끼로 때린 사건이 일어났다. 推古天皇은 진노했고, 犯人뿐만 아니라 여러 僧尼도 처벌하려 하였

5)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31年(623) 7月 조.

6)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6年(608) 9月 조.

7) 이재석, 「7세기 동아시아 정세에서 본 上宮王家 멸망사건」 『歷史學報』 228, 2015, 207-210쪽 참조.

다. 그러자 602년 백제에서 온 승려 觀勒이 천황에게 표를 올려 “倭國에 불교가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승려들이 법률을 배우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나쁜 짓을 한 승려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사면을 해주면 이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청원하였다. 이는 받아 들여졌고, 승려들을 감독할 僧正과 僧都직이 만들어졌다. 초대 僧正으로 觀勒이 임명되었다.⁸⁾

당시 倭國은 승려들에게 법률의식을 심어줄 더 낡은 인재를 찾고 있었다. 觀勒은 한계가 있었다. 奈良 東大寺 沙門 凝然이 1311년에 찬술한 『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三論宗 조를 보자.

“從此前年觀勒法師自百濟國來, 此亦三論宗之法匠, 亦未講通法教.”

옛날에 백제에서 온 觀勒法師 또한 三論宗의 法匠이었지만 法教에 講通하지 못했다고 한다. 불교계에서 당의 법률 지식을 갈구하는 가운데 推古天皇이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625년 정월 고구려 營留王이 승려 惠灌을 倭國에 보내왔고, 그가 僧正에 임명되었다.⁹⁾

惠灌은 高僧 嘉祥大師 吉藏에게 受學한 三論學者였다. 606년 嘉祥大師는 隋煬帝의 부름으로 長安의 日嚴寺 등에서 講說하였다. 황제를 비롯한 많은 신봉자를 얻었다. 唐이 건국되고 高祖의 부름으로 延興寺에 있었다. 623년 스승이 돌아가자 惠灌은 唐에서 조국 高句麗로 귀국했고, 營留王의 명을 받아 왜국에 파견되었다. 『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三論宗 조에 다음의 기록이 있다.

百濟가 佛法을 傳한지 74년이 지난 推古天皇 33年(625)乙酉, 唐高祖 武德 8年 乙酉에 고구려國王이 僧 惠灌(惠灌)을 보내어 왔다. 그는 唐의 嘉祥大師에게 受學하였고, 이로서 日本에 三論이 들어왔다.¹⁰⁾

8)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32年(624) 夏4月 조.

9)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33年(625) 正月 戊寅 《七》 “高麗王貢僧惠灌。仍任僧正。”

惠灌은 嘉祥大師에게 受學한 승려로서 그가 와서 일본에 三論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惠灌은 자신의 스승을 통해 唐皇室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惠灌은 倭國의 권력자들로부터 주목받지는 못했다. 『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三論宗 조의 다음 기록은 참고가 된다.

“第37代 聖主인 孝德天皇 때 이르러 元興寺僧 高구려 慧灌法師에 청하여 三論을 講하게 했다.”

“如來滅後 1574년이 지난 乙酉년에 慧觀(惠灌)이 來朝하였고, 그 후 21년 동안 講敷를 넓히지 못하였다. 大化 2年 丙午初에 가서야 三論講場을 열었다.”¹¹⁾

惠灌이 倭國에 온 이후 21년 동안 널리 講敷하지 못했다. 大化 2年(646)에 가서야 그는 孝德天皇으로부터 令講을 요청받았고, 처음으로 三論講場을 열었다. 孝德天皇대 대당유학승이 존중받는 분위기는 2·3차 遣唐使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겠다.

630년 3월 高麗의 大使 婁子拔과 小使 若德, 百濟의 大使 恩率 素子和 小使 德率 武德 등이 함께 倭國을 찾았다.¹²⁾ 森公章은 高구려와 百濟의 사절 파견 목적이 倭國의 遣唐使를 牽制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高구려와 百濟는 倭國을 어디까지나 自陣에 끌어드리려 했다는 것이다.¹³⁾

麗濟가 倭國을 자신들의 편에 두고자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양국이 倭國의 遣唐使 파견을 견제했다는 森公章의 추측에 동의할 수 없다. 倭國은

10) 『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三論宗 조 “百濟佛法傳日域後. 至推古天皇御宇三十三年(625)乙酉經七十四年. 當大唐高祖武德八年乙酉. 此年高麗國王眞僧慧灌(惠灌)來朝. 此乃. 隨大唐嘉祥大師受學 三論而來日本.”

11) 『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三論宗 조 “至第三十七代聖主孝德天皇御宇. 乃請元興寺僧高麗慧灌法師令講三論.” “如來滅後經一千五百七十四年乙酉之歲慧觀(惠灌)來朝. 來朝之後二十一年未廣講敷. 大化二年丙午初開三論講場.”

12) 『日本書紀』 卷23, 舒明天皇 3年(630) 3月 丙寅朔 “高麗大使婁子拔. 小使若德. 百濟大使恩率素子. 小使德率武德共朝貢.”

13) 森 公章 『遣唐使の光芒』 角川選書, 2010, 65쪽.

三國과 등거리 외교를 했고, 정보의 교차 확인이 가능했다.

(630년) 가을 8월 癸巳朔 丁酉에 大仁 犬上君三田耜과 大仁 藥師惠日을 大唐에 파견했다.¹⁴⁾

630년 8월 5일 對唐外交에 미온적이었던 왜 조정이 갑자기 遣唐使를 파견한다. 大仁 犬上君三田耜(御田耜)¹⁵⁾과 大仁 藥師惠日을 唐에 파견한다. 麗濟의 사신이 도착한 5개월 후 왜가 돌연히 遣唐使 사절단을 꾸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동안 對唐外交에 미온적이던 倭國의 실권자 蘇我蝦蟇의 결단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¹⁶⁾ 당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고구려 사신이 倭國에 중요한 정보를 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630년 국제관계의 최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唐太宗이 북방 초원의 최강국 東突厥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頡利可汗을 사로잡았다.¹⁷⁾ 이전 唐太宗과 그의 아버지 唐高祖는 東突厥에게 약자였다. 당건국 초기(617-627) 東突厥의 약탈과 자연재앙은 구분이 되지 않았다. 東突厥은 당을 약탈하고 협박하여 끊임없이 물자를 착취했다. 626년 唐太宗 李世民이 태자인 형 建成과 동생인 元吉을 죽이고 아버지 高祖를 연금한 후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그러했다.

李世民的 쿠데타 소식은 초원으로 흘러들어갔다. 東突厥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바로 그 달에 10만 기병을 이끌고 장안 부근까지 진격해왔다. 頡利

14) 『日本書紀』卷23, 舒明天皇 2年(630) 8月 丁酉“以大仁犬上君三田耜, 仁藥師惠日遣於大唐。

15) 犬上君은 614년(推古天皇22年6月13日) 遣隋使로서 수나라로 건너갔다가 이듬해인 615년(推古天皇23) 9월에 百濟使와 歸國하였다. 그는 최후의 遣隋使이자 최초의 遣唐使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16) 石母田正은 推古朝의 외교가 친백제적인 蘇我氏 방식과 친신라적인 太子방식 노선 대립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岩波書店, 1971, 51-52쪽. 후속 연구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의 이러한 도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倭國의 遣唐使 연구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17) 『자치통감』卷20, 貞觀 4년(630) 정월 조, 2월조.

可汗은 渭水의 편교까지 진출한 후 사신을 성안으로 파견했다.

대군을 동원해 침입해온 東突闕을 唐太宗은 막아낼 수 없었다. 東突闕은 수확 없이 절대 물러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당 태종은 굴욕이라도 참고 전쟁을 피해야 했다. 그는 장안성에 있는 금은 비단 등 재물을 모두 끌어 모아 頡利可汗에게 바치고 화의를 요청했다.¹⁸⁾

唐太宗은 東突闕에 굴욕감과 동시에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627년 薛延陀와 回紇이 반란을 일으켜 東突闕 頡利可汗의 조카인 阿史那欲谷 設의 군대를 격파했다.

그러던 차에 초원에 수십 년 마다 반복되는 天災(dzud)가 찾아왔다. 추위 속에 가축들이 죽어갔다. 東突闕에 사신으로 갔던 鴻臚卿 鄭元壽이 돌아와서 唐太宗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戎狄의 興衰는 羊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東突闕의 백성들이 주리고 가축은 말라있으니 이는 장차 망할 징조이며, 3년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¹⁹⁾

628년 4월 이전에 東突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奚·靺·契丹族이 당에 항복하였다. 인접한 지역에 살았던 그들의 투항은 고구려에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이어 東突闕에 내분도 일어났다. 頡利可汗의 조카 突利가 삼촌과 틈이 벌어져 당에 항복하려 했다.²⁰⁾

東突闕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고구려는 빠르게 움직였다. 628년 9월 고구려 營留王이 당 조정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頡利可汗을 파한 것을 축하하고 封域圖를 바쳤다.²¹⁾ 의례적이지만 당 아래 들어가는 것을 자청했

18) 『新唐書』卷93, 李靖. “帝曰…靖以騎三千 躐血虜庭 遂取定襄 古未有輩 足澡吾渭 水之恥矣.”

『자치통감』卷20, 武德 9년(626) 8월 28일 조 “頡利可汗進至渭水便橋之北 遣其腹心執失思力入見 以觀虛實…所以不戰者 吾即位日淺 國家未安 百姓未富 且當靜以撫之 一與虜戰 所損甚多; 虜結怨既深 懼而修備 則吾未可以得志矣 故卷甲韜戈 啖以金帛 彼既得所欲 理當自退 志意驕惰 不復設備 然後養威伺變 一舉可滅也 將欲取之 必固與之 此之謂矣 卿知之乎 瑒再拜曰 非所及也.”

19) 『자치통감』卷20, 貞觀 元年(627) 12월 조

20) 『자치통감』卷20, 貞觀 2年(628) 4월 조

21) 『冊府元龜』卷970, 外臣部·朝貢3 “(貞觀2年)九月高麗王建武遣使奉賀破突厥頡利可

다. 고구려의 예상은 적중했다. 630년 2월 당의 장군 李靖이 陰山에서 頡利可汗의 주력을 격파했다. 참수한 것이 만여 급이고 포포가 10여 만 가축 수십만 마리를 노획했다.²²⁾

東突厥이 붕괴된 1개월 후 서북 변경의 유목군장들이 당 태종에게 ‘天可汗’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天子가 중국과 소유목세계를 아우르게 되었다.²³⁾ 630년 3월 奈良에 도착한 고구려 사신은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630년 2월 이전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²⁴⁾ 隋末 내란을 극복하고 건국한 당이 유일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소식은 倭國의 상층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舒明天皇 즉위 직후인 630년 8월에 1차 遣唐使를 서둘러 파견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31년 倭國사신은 唐太宗을 만났다. 방물을 바치자 太宗은 먼 길을 온 倭國사신들에게 해마다 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신주자사 高表仁을 시켜 倭國사신의 귀국길에 동행하게 했다. 하지만 왜국에 도착한 高表仁은 倭國의 王子와 禮를 두고 다투고 말았다.²⁵⁾ 高表仁은 동아시아를 제패한 유일강대국 당나라의 사신으로서 거만하게 행동했고, 왜가 여기에 반발했던 것 같다.

섭나라 倭國이 唐使臣을 당당하게 대했던 것은 당의 문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權臣인 蘇我氏가 지배하는 倭國의

汗並上封域圖.”

이강래, 「경험과 역사」 『韓國史研究』 173, 2016, 356-357쪽 참조.

22) 『자치통감』 卷20, 貞觀 4年(630) 2월 조

23) 『자치통감』 卷20, 貞觀 4年(630) 3월 조 “三月, 戊辰, 以突厥夾畢特勒阿史那思摩爲右武修大將軍, 四夷君長詣闕請上爲天可汗, 上曰: “我爲大唐天子, 又下行可汗事乎?” 群臣及四夷皆稱萬歲. 是後以璽書賜西北君長, 皆稱天可汗.”

24) 고구려 사신이 倭國에 東突厥관련 소식을 전한 사례가 『日本書紀』에 보인다.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即位前紀 齊明天皇 7年(661) 7月 是月 “蘇將軍與突厥王子契苾加力等. 水陸二路至于高麗城下.” 661년 突厥계인 계필하력의 대규모 기병단이 육로로 진격해 평양으로 향했고, 蘇定方 的 중국군은 배를 타고 그곳으로 진격해 왔다.

25) 『唐會要』 卷99, 倭國 “…表仁無綏遠之才. 與王爭禮. 不宣朝命而還. 由是復絕.” 『舊唐書』 卷199, 倭國 “又遣新州刺史高表仁持節往撫之. 表仁無綏遠之才, 與王子爭禮, …”

권력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蘇我氏의 정권유지였고, 당으로부터 문물 도입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앞서 蘇我氏는 당에서 새로운 불교를 배우고 입국한 고구려 승려가 눈앞에 있어도 관심이 없었고, 唐國學에서 배운 유학생 귀국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다.

1차 遣唐使는 당의 答使까지 倭國에 오는 중요한 외교성과를 거두었지만 蘇我씨가 지배하는 왜국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새롭게 등장한 세계 최강국 당을 살펴보았던 것에 만족했다.

Ⅲ. 唐高宗의 즉위와 2·3차 遣唐使

645년 이후 변화의 바람이 唐倭 양국에 찾아들었다. 옥일승천하던 唐太宗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氣勢가 꺾였다. 같은 해 6월 8일 倭國의 中大兄皇子와 中臣鎌足이 大極殿에서 蘇我入鹿을 암살하였다. 入鹿의 아버지 蘇我蝦夷가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인지한 그는 다음날인 13일에 아들 入鹿의 시신 앞에서 자결하였다.²⁶⁾

倭國에서 蘇我氏정권이 붕괴하고 大化정권이 들어섰다. 그로부터 4년 후인 649년 5월 唐太宗이 사망하고 태자 李治가 즉위하였다. 唐高宗은 카리스마적인 면에서 보자면 아버지와 차이가 엄청났다. 唐太宗의 죽음은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의 위엄에 놀려 지냈던 주변 나라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649년 10월 토번왕 승젠간포가 唐高宗의 외삼촌 長孫無忌에게 서신을 보냈다. “새 황제에게 불충한 자가 있다면 장안에 군대를 보내 그들을 토벌할 것이다.”²⁷⁾ 胡三省은 주를 달아 “토번이 태종의 죽음을 맞아 진실로 중국을

26) 연민수외,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162쪽, 註238.

27) 『資治通鑑』 卷199, 太宗 貞觀 23年(649) (10月) “上以吐蕃贊普弄贊爲駙馬都尉, 封

가볍게 여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토번이 당의 수도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것은 험박이었다.²⁸⁾

서북 초원에서도 이반의 움직임이 나타났다.²⁹⁾ 阿史那賀魯는 唐太宗이 돌아간 지 1년 6개월 만에 西突厥 재통일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타림분지와 파미르 고원을 넘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다.³⁰⁾ 이는 당 제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향후 끊임없는 西突厥의 침입으로 唐高宗은 여기에 대항하는 군대를 보내야 했다. 승부가 나지 않았고, 끝이 보이지 않은 소모전이 지속되었다.³¹⁾

물론 이 시기 시라무렌 초원에 대한 당의 지배력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653년 고구려가 그곳을 잠식하여 들어오기 시작했다.³²⁾ 倭國이 唐太宗의 죽음으로 변화된 국제정세를 모르고 있었을까. 당시 倭國은 三國의 사신이 끊임없이 드나들던 곳이었다.³³⁾ 우리는 여기서 『日本書紀』의 다음 기록을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西海郡王. 贊普致書於長孫無忌等雲：“天子初即位，臣下有不忠者，當勒兵赴國討除之。”

28) 정병준, 「吐蕃의 吐谷渾 併합과 大非川 戰鬪：唐朝의 韓半島 政策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218, 2013. 309-340쪽.

29) 貞觀 23년(648) 4월 西突厥에서 내분이 일어나 阿史那賀魯가 투항해 오자 唐太宗은 庭州 莫賀城에 거처하게 했다. 그해 賀魯는 당의 龜茲 정벌에 참전하였고, 649년 2월 瑤池都督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태종이 죽자 당에 반기를 들었다(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東洋史學研究』 143, 2018, 30쪽).

30) 『資治通鑑』 卷199, 高宗 永徽 2年(651) 春 正月 조.

31)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 and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pp. 279-280.

32) 당과 西突厥의 전쟁과 고구려의 시라무렌 잠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徐榮欽, 「『新唐書』 日本傳에 보이는 唐高宗 令出兵援新羅聖書의 背景」 『歷史學報』 237, 2018, 3-16쪽.

33) 650년 당시 孝德天皇을 측근에서 모셨던 侍醫가 고구려인 毛治였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日本書紀』 卷25, 白雉元年(650) 2月 甲申 《十五》 “高麗侍醫毛治.”

“(白雉 2年:651)是歲。新羅貢調使 知万 沙浪 等 이 唐國服을 입고 筑紫에 이르렀다. 朝廷에서 함부로 풍속을 바꾼 것을 싫어하여 꾸짖고 돌려보냈다. 그때 巨勢大臣이 지금 신라를 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方今不伐新羅。於後必當有悔). 그 정벌은 모든 힘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難波津으로부터 筑紫海의 가운데까지 서로 이어지도록 배를 가득 띄우고 新羅를 불러 그 罪를 묻는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³⁴⁾

651년 신라 사신이 唐服을 입고 나타나자 倭國은 그들을 추방했다. **지금 신라를 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巨勢大臣 주장은 당제국의 힘이 서쪽에 묶인 지금 親唐的인 신라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적어도 그의 발언은 麗濟의 양면 공격을 받고 신라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650년 6월 入唐한 신라의 태자 김법민은 唐高宗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고구려와 백제가 脣齒 같이 서로 공조하여 번갈아 침략하니 큰 城과 중요한 鎮들이 모두 백제에 병합되어 영토는 날로 줄어들고 나라의 위엄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³⁵⁾

당시 당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문화적 혜택을 베풀어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려 했다. 唐高宗은 토번국왕을 寶王으로 進封하고³⁶⁾ 雜綵 3천단을 보내주었고, 토번이 養蠶 종자 및 술·땃돌·종이·먹을 만드는 장인을 청하자 모두 허락하였다.³⁷⁾ 650년 西突厥과 가까운 龜茲國에도 자치권을 주고 물자를 증여했다.³⁸⁾

34) 『日本書紀』卷25, 白雉 2年(651) 是歲 조.

35) 『舊唐書』卷199上, 東夷 百濟傳.

『三國史記』卷28, 의자왕 11년(651) 조 “遣使入唐朝貢. 使還, 高宗降璽書, 諭王曰… 新羅使金法敏奏言: ‘高句麗·百濟, 脣齒相依, 竟舉干戈, 侵逼交至, 大城重鎮, 並爲百濟所併, 疆宇日蹙, 威力並謝.’”

36) 『新唐書』卷216, 吐蕃傳上

37) 『舊唐書』卷196, 吐蕃傳上 “高宗嗣位, …請置太宗靈座之前. 高宗嘉之, 進封爲寶王, 賜雜綵三千段. 因請蠶種及造酒、碾、磑、紙、墨之匠, 並許焉. 乃刊石像其形, 列昭陵玄闕之下.”

38) 『舊唐書』卷198, 西戎 龜茲 “永徽元年, 又以訶黎布失畢爲右驍衛大將軍, 尋放還蕃,

倭國의 大化정권도 이러한 당의 유화정책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국왕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들은 唐의 문물에 관심이 많았다. 白雉 5년(653) 夏4월에 倭國은 23년 만에 遣唐使를 파견하였다.

(白雉)4年(653) 여름 5月 辛亥朔 壬戌에 遣大唐大使 小山上 吉士長丹. 副使 小乙上 吉士駒 <駒, 更名糸>, 學問僧 道嚴, 道通, 道光, 惠施, 覺勝, 弁正, 惠照, 僧忍, 知聰, 道昭, 定惠 <定惠, 內大臣之長子也>, 安達 <安達, 中臣渠每連之子>, 道觀 <道觀, 春日粟田臣百濟之子>, 學生 巨勢臣藥 <藥豐足臣之子>, 氷連老人 <老人, 眞玉의 아들. 或本에 學問僧 知辨, 義德, 學生坂合部連 磐積을 보냈다>, 121인을 한 배에 태웠다. 室原首御田을 送使로 삼았다.

또 大使로 大山下 高田首根麻呂 <更名, 八掬脛> 을 삼고, 副使로 小乙上 掃守連小麻呂를 삼아 學問僧 道福, 義向 등 모두 120사람을 한 배에 태우고 土師連八手를 送使로 삼았다. 39)

2차 遣唐使 241인 가운데 상당수의 학문승과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學問僧으로 道嚴, 道通, 道光, 惠施, 覺勝, 弁正, 惠照, 僧忍, 知聰, 道昭, 定惠, 安達, 道觀, 道福, 義向이, 學生으로 巨勢臣藥, 氷連老人 등이 유학길에 올랐다. 或本에는 學問僧으로 知辨, 義德, 學生으로 坂合部連 磐積을 보냈다고도 한다. 당 문화와 학문을 대폭 흡수하려는 孝德天皇의 의지가 보인다. 40)

大化朝廷에서 실력자인 內大臣 中臣鎌足の 장남 定惠가 留學僧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遣唐使 파견에 내부 지지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撫其餘眾, 依舊為龜茲王, 賜物一千段.”

위의 기록에 대하여 李眞善은 唐太宗대 龜茲國 정복 직후인 648년 윤12월 무렵에 安西 4진이 최초로 설치되었고, 唐太宗 사망 직후인 650년 唐高宗이 龜茲國을 통제할 여력을 잃었다고 한다(李眞善, 「唐 前期 安西四鎮의 設置와 變化樣相」 『東洋史學研究』 141, 2017, 103쪽).

39) 『日本書紀』 卷25, 白雉 4年(653) 5月 조.

40) 鬼頭清明, 『日本古代國家의 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976, 132-133쪽 참조
羅幸柱, 「倭國의 弟3차 遣唐使와 百濟·新羅」 『百濟研究』 58, 2013, 41쪽.

하지만 高田首根麻呂가 탄 배는 항해도중 침몰하였고, 653년 7월 文部金 등 5인만이 살아 돌아왔다.⁴¹⁾ 2차 遣唐使가운데 절반이 水葬 당했다. 참사를 보고받은 당시 孝德天皇은 2차 遣唐使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고 여겼을 지도 모른다. 654년 2월에 다시 3차 遣唐使를 곧바로 파견한다.

(654) 2月。遣大唐押使 大錦上 高向史玄理 〈或本에 夏 5月。遣大唐 押使 大華下 高玄理라고 한다〉, 大使 小錦下 河邊臣麻呂, 副使 大山下 藥師惠日, 判官 大乙上 書直麻呂, 宮首阿彌陀 〈或本에 判官 小山下 書直麻呂라고 한다〉. 小乙上 岡君宜. 置始連大伯. 小乙下 中臣間人連老 〈老, 此云於於〉, 田邊史鳥 등이 2船에 나누어 탔다. 수개월을 떠다니다가 新羅道를 잡아 (산동) 萊州에 도착했다. 왕경인 장안에 가서 天子를 만났다. 東宮監門 郭丈舉 日本國의 地里와 國初의 神名에 대해 전부 물으니, 모두 답하였다. 押使 高向玄理는 大唐에서 죽었다.⁴²⁾

654년 12월 倭國의 사절들은 장안에 들어가 唐高宗을 만났다.⁴³⁾ 森公章은 3차 遣唐使의 파견배경과 목적을 순수한 倭國의 국내적 필요에 의한 문화사절로서 2차 遣唐使 제2선의 漂沒 이후, 한층 더한 지식과 문물을 당에서 구하고자 하는 孝德天皇의 열의에 中大兄을 비롯한 倭國 내의 諸세력이 타협한 결과라고 했다.⁴⁴⁾ 한편 이보다 앞서 653년에 倭國을 출발한 2차 遣唐使의 일부가 654년 7월에 귀국했다.

西海使 吉士長丹 등을 태운 배가 百濟·新羅送使와 함께 筑紫에 도착했다. 是月。褒美西海使 등이 唐國 天子를 奉對하여 많은 文書와 寶物을 얻은 것

41) 『日本書紀』卷25, 白雉 4年(653) 7月 조.

42) 『日本書紀』卷25, 白雉 5年(654) 2月 조.

43) 『舊唐書』권4, 高宗本紀上 永徽 5年(654) 12月 “十二月 癸醜, 倭國獻琥珀、碼瑙, 琥珀大如門, 碼瑙大如五門器.”

연민수외,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252쪽 註662 참조.

44) 森公章,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 吉川弘文館, 2008, 제1부 제2장 및 3장(羅幸柱, 「倭國의 第3차 遣唐使와 百濟·新羅」 『百濟研究』 58, 2013, 42쪽 재인용).

을 칭찬하여 小山上 大使 吉士長丹을 小華下로 삼고, 封으로 100戶를 주고, 吳氏 姓을 하사 하였고, 小乙上 副使 吉士駒에게 小山上으로 삼았다.⁴⁵⁾

2차 遣唐使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1호선에 승선한 학문승과 유학생이 당에 도착했고, 무엇보다 귀국하면서 다량의 문서와 보물을 가져옴으로써 문물 수입의 목적을 달성했다. 의외의 성과였다. 孝德天皇의 예측은 어느 정도 적중했다.

그렇지만 3차 遣唐使는 예상치 못한 唐高宗의 璽書를 받았다.⁴⁶⁾ 『唐會要』 卷99, 倭國 조를 보자.

“永徽 5年(654) 12月, (倭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琥珀瑪瑙를 바쳤다. 琥珀는 大如斗이고, 瑪瑙는 大如五升器이다. 高宗이 降書하여 慰撫하였다. 거듭 이르기를 (倭)王의 나라가 新羅와 가깝다. (현재) 新羅가 高麗百濟의 침략을 받아 위급한 것 같으니 (倭)王은 마땅히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라!”⁴⁷⁾

신라가 백제·고구려로부터 침공을 받아 위급하니 가까이 있는 倭王이 군대를 보내 구원하라는 것이다. 신라의 사신이 唐高宗을 만나 구원을 요청한 시기는 655년 1월이다. 倭國사신에게 璽書가 내려진 것은 그 직후가 될 것이다.⁴⁸⁾

45) 『日本書紀』 卷25, 白雉 5年(654) 7月 조.

46) 『新唐書』 卷220, 東夷傳 日本전 “永徽初, 其王孝德即位, 改元曰白雉, 獻虎魄大如鬥, 碼函若五升器. 時新羅爲高麗、百濟所暴, 高宗賜璽書, 令出兵援新羅.”

47) 『唐會要』 卷99, 倭國 조 “永徽五年十二月. 遣使獻琥珀瑪瑙. 琥珀大如斗. 瑪瑙大如五升器. 高宗降書慰撫之. 仍云. 王國與新羅接近. 新羅素爲高麗百濟所侵. 若有危急. 王宜遣兵救之.”

48) 『資治通鑑』 卷199, 高宗 永徽 6年(655) 正月 조 “高麗與百濟·靺鞨連兵, 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春秋遣使求援.”

徐榮教, 「『新唐書』 日本傳에 보이는 唐高宗 令出兵援新羅璽書의 背景」 『歷史學報』 237, 2018, 18쪽.

IV. 倭國의 皇帝 璽書 默殺과 唐의 (4차)倭使 監禁

倭國은 신라와도 관계를 유지했고, 고구려·백제와도 긴밀한 관계였으며, 당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자 했다. 唐高宗의 璽書는 倭國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자간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이었다.

唐은 西突厥과 전쟁 중이라 신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고종은 倭國王에게 璽書를 내려 신라에게 군사적 원조를 하라고 명령했다. 璽書를 소지한 사절단장 河邊臣麻呂가 倭國에 도착한 것은 655년 8월 戊戌朔이었다.

齊明天皇 元年(655) 8월 戊戌朔, 河邊臣麻呂 등이 大唐에서 돌아왔다.⁴⁹⁾

당시 璽書의 수신자인 孝德天皇은 돌아가고 없었다. 齊明天皇에게 唐高宗의 令倭國出兵援新羅璽書가 전달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기록에서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倭國은 신라에 군사원조를 하라는 唐高宗의 명령(璽書)을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당에 적대적인 麗濟와 외교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당시 倭國의 실권자는 中大兄皇子와 內大臣 中臣鎌足이었다.

가을 7월 (11일) ...아울러 百濟調使 150人에게 향응을 베풀었다.⁵⁰⁾

璽書가 도착하기 1개월 전 백제의 대규모 사절단이 와 있었다. 150명에 달하는 사절단이었다. 그들은 마치 唐에서 璽書를 가지고 귀국한 倭使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을 준다. 655년 그해 다시 100여 명에 달하는 백제의 사절이 도착했던 것 같다.

49)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元年(655) 8월 戊戌朔 “河邊臣麻呂等自大唐還.”

50)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元年(655) 7월 “秋七月 …并設百濟調使一百五十人”

그해 高麗, 百濟, 新羅가 함께 사신을 보내 進調했다. 〈百濟大使 西部의 達率 余宜受와 副使 東部の 恩率 調信仁이 이끌고 온 모두 100여명이었다.〉… 新羅는 별도로 及 滄 彌武를 質로 삼아, 才伎者 12명과 함께 倭國으로 파견하였다. 彌武는 疾에 걸려 죽었다.⁵¹⁾

접치는 기록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백제의 대규모 사절단이 연이어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⁵²⁾ 150인과 100인으로 사절규모에 있어 차이가 보이며, 후자의 경우 정사와 부사의 소속부와 관등 이름까지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璽書의 사실은 倭國을 방문한 백제 사절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경우 655년 정월 入唐한 新羅使가 귀국하면서 사실이 알려졌을 것이다. 그것을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춘추가 특별히 級滄 彌武를 質로 삼아 倭國에 머물게 했다. 하지만 당시 倭國의 분위기에서 彌武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彌武는 곧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한다. 왜 조정은 고구려·백제와의 외교에 더 적극적이었다.

(656년) 가을 8月 庚子(8일) 高麗가 達沙 등을 파견하여 進調하였다. 〈大使 達沙와 副使 伊利之를 포함한 총 81인이었다〉.⁵³⁾

656년 8월 8일 고구려가 倭國에 81명에 달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사절단장은 達沙였고 副使는 伊利之였다. 부사의 姓 伊利는 『日本書紀』 皇極元年(642) 2月 丁未(21일)에 보이는 淵蓋蘇文의 이름 伊梨柯須彌에도 보인다. 伊梨는 淵·泉의 훈을 표기한 것이다. 伊利之는 淵之로 읽을 수 있으며 연개소문과 동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⁴⁾ 고구려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연개

51)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元年(655) 是歲 高麗, 百濟, 新羅, 並遣使進調。〈百濟大使西部達率余宜受。副使東部恩率調信仁。凡一百餘人。蝦夷, 隼人, 率衆內屬。詣闕朝獻。新羅別以及滄彌武爲質。以十二人爲才伎者。彌武遇疾而死。〉

52) 羅幸柱, 「倭國의 弟3차 遣唐使와 百濟新羅」 『百濟研究』 58, 2013, 32쪽.

53)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2年(656) 8月 庚子(8일) “二年秋八月癸巳朔庚子。高麗遣達沙等進調 〈大使達沙, 副使伊利之, 總八十一人。〉”

54) 연민수外,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279쪽 註48.

소문은 倭國과의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여기에 대한 倭國의 반응은 곧바로 나타났다. 답사가 바로 다음 달에 고구려로 파견되었다.

(656년) 9月 大使로 膳臣葉積, 副使로 坂合部連磐楸, 大判官으로 犬上君白麻呂, 中判官으로 河內書首(이름이 빠져있다) 小判官으로 大藏衣縫造麻呂를 삼아 고구려에 보냈다.”⁵⁵⁾

당시 고구려와 倭國 사이의 외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山尾幸久는 656년 倭國은 백제·고구려의 군사연합에 신속히 접근했다고 보았고,⁵⁶⁾ 연민수도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자 倭國은 즉시 사절단을 파견하여 고구려와 손잡고 당에 대항하고자 했다고 보았다.⁵⁷⁾

필자는 여기에 동의 할 수 없다. 656년 평양에 도착한 倭國의 遣高句麗使는 향후 양국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볼 수 있지만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당에 대항하려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국제외교에서 다자간의 교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던 왜국이 누구를 위해 누구의 편에 가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倭國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劉仁軌가 쓴 盟新羅百濟文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옛 百濟先王(의자왕)은 미혹하고 順逆하여, 이웃나라(신라)와 잘 지내지 않고, 高麗와 結托하고 倭國과 交通하여 함께 殘暴하게 新羅를 쳐서 영토를 빼앗아 그 邑을 사납게 약탈하고 그 城을 부수어 험하게 다스렸다.⁵⁸⁾

55) 『日本書紀』卷26, 齊明天皇 2年(656) 9月 조.

56) 山尾幸久, 「7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百濟研究』 23, 1991, 175-176쪽.

57) 연민수外, 『譯註日本書紀』 3, 동북아재단 2013, 280쪽 註56.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478-479쪽 참조.

58) 『冊府元龜』卷981, 外臣部·盟誓 조 “往者百濟先王, 迷於順逆, 不敦隣好, 不睦親姻, 結托高麗, 交通倭國, 共爲殘暴, 侵削新羅, 剽邑屠城, 略無寧歲.”

백제는 고구려와 결탁하고 倭國과 交通하여 함께 신라를 공격하여 영토를 빼앗았다고 한다. 倭가 백제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기록이다.

654년 入唐했던 3차 遣唐使가운데 高向玄理(高向黑麻呂)는 당에 남겨졌다. 『日本書紀』 卷25, 白雉 5年(654) 2월 조 일괄기록을 보면, (654년 12월) 高向玄理가 황제를 대면한 후 東宮監門 郭丈舉가 중국어에 능통한 그에게 日本國의 地里와 國初의 神名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그가 해주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과로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그의 사망은 倭國出兵援新羅璽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왜의 大化조정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예민한 高向玄理가 보기에 황제의 璽書는 倭國의 이러한 다면외교를 접고 唐에 줄을 설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⁵⁹⁾

唐帝國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倭國의 대외관계 기초를 동시에 잘 알고 있었던 高向玄理였다. 그는 璽書가 미칠 중대한 파장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 조정은 고구려백제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가 璽書에서 요구한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 최강국 唐帝國으로 하여금 倭國에 대한 적개심에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결국 신라와 倭國의 관계도 냉각될 것이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倭國도 거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앞에서 비롯된 苦海가 高向玄理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高向玄理가 죽은 2년 후 당이 西突厥을 제압하면서 다시 유일강대국에 복귀했다. 657년 12월 蘇定方(592~667)은 중국인 장창보병과 함께 천산산맥 북쪽으로 향했고, 친당적인 回紇 등 유목기병들과 현지에서 합류하였다. 당

59)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143쪽 참조.

羅幸柱, 「倭國의 弟3차 遣唐使와 百濟新羅」 『百濟研究』 58, 2013, 43-44쪽.

의 長槍步兵과 遊牧騎兵이 결합된 步騎 혼합전술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모투와 같은 당의 장창보병에 西突厥 주력 기병들이 가로 막히자, 回紇 기병이 망치와 같이 내리 꽂혀 그들을 깨멸시켰고, 도주하는 西突厥 기병이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끈질긴 추격전을 지속한 끝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⁶⁰⁾

유약한 唐高宗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군사적 업적이었다. 658년까지 唐高宗은 西突厥을 都陸과 弩失畢로 분할했고, 그 영토에 당의 都護府를 설치했다. 新疆 서부의 타시켄트와 Oxus계곡 일대의 西突厥 종주권 하에 있었던 다른 부족민들도 659년까지 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당제국은 황해에서 페르시아 접경에까지 세력을 뻗었다.⁶¹⁾

당의 영향력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자 倭國은 고구려·백제만 바라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보다 더 많은 서역의 사절들과 全世界의 이국적인 문물이 당에 모여들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새롭게 강해진 당은 적대적인 고구려와 백제에 문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왜국은 麗濟를 통해 발달된 문물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줄었다. 659년 倭國은 坂合部連石布를 단장으로 하는 4차 遣唐使를 파견한다.

秋 7月 戊寅 小錦下 坂合部連石布。大仙下 津守連吉祥을 唐國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仍以陸道輿蝦夷 男女 2인을 唐天子에게 보여주었다. <伊吉連博德書에서 말하기를 …략… 10月 15日말 장안에 入京하였다. 29日말을 타고 낙양(東京)에 도착하였다.天子가 東京에 있었다. 30日 天子가 相見하여 물었다. 日本國天皇은 平安하신가? 使人이 삼가 答하기를 天地合德하여 스스로 平安을 얻었습니다. …략…天子가 다시 말했다. 脫이 蝦夷身面の 異함을 보니 기쁘고 신기하구나! 使人들은 멀리서 왔으니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물러가

60) 657년 12월 소정방의 對西突厥 전투에 대해서 다음의 글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서영교, 「蘇定方の 長槍步兵과 對西突厥 전투」 『中國古中世史研究』15, 2006.

61)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 and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pp.279-280.

관청에 머물도록 하라. 후에 다시 볼 것이다. 11月 1日. 조정에서 冬至會가 있었다. 그날 천자를 다시 알현하였다. 입조한 諸蕃 가운데 倭客이 최고로 훌륭하였다. 그러나 뒤에 화재 때문에 더 이상 알현은 없었다. 12月 3日. 韓智興의 시종인 西漢大麻呂가 우리 사신을 참언하였다. 사신들이 당조에 獲罪하여 流罪가 결정되었다. 먼저 智興을 3千里 밖으로 유배 보냈다. 사신 가운데 伊吉連博德이 상주하여 免罪되었다. 일이 끝난 뒤에 勅旨가 내려 왔다. 國家가 來年에 반드시 海東을 정벌하러 간다. 너희들 倭客은 東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명하였다. 장안(西京)으로 옮겨 별도의 장소에 감금되었다. 문을 닫고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랫동안 고생하였다.⁶²⁾

倭國이 자신의 조공국인 蝦夷國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은 당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⁶³⁾ 4년 전 唐高宗의 命出兵援新羅璽書를 목살한 倭國이 상황이 반전되자 재차 사절을 파견하여 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의도와는 별개로 국제정세는 倭國이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659년 4월 김춘추가 당에 정병을 하여 나당동맹의 결행을 요구했고, 당 조정은 군대파병 여부를 결정할 터였다.⁶⁴⁾ 서역의 초원을 제압한 당이 동진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倭國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倭國사절이 당에 도착해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唐高宗의 命出兵援新羅璽書를 默殺하면서 품게 된 막연한 우려는 적중했고,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659년 10월 15일 장안에 온 倭國 사절단은 唐高宗이 머물던 낙양으로 향했고, 30일 그곳에서 황제를 알현했다. 倭國王의 안부를 묻는 의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특이한 蝦夷身面을 본 황제는 기뻐하면서도 신기해했다.

62) 『日本書紀』卷26, 齊明天皇 5年(659) 7月 乙.

63) 『冊府元龜』卷970, 外臣部·朝貢3 顯慶 4年(659) 10月 乙에서 “蝦夷國隨倭國使入朝.”라고 하고 있어 『日本書紀』 내용과 일치한다.

64) 『삼국사기』 권5, 태종무열왕 6年(659) 夏4月, “百濟頻犯境, 王將伐之, 遣使入唐乞師.”

서영교, 「황산벌 결전 직전의 국제정세」 『군사연구』 13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1, 109~132쪽.

그런데 12월 3일 직후 칙지가 내려왔다.“國家가 來年에 반드시 海東을 정벌하러 간다. 너희들 倭客은 東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명하였다.”⁶⁵⁾ 당의 백제침공 결정을 알게 된 倭國의 遣唐使는 감금되었다. 倭國이 백제와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황제가 그 사절의 발설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던 것이다.

다음해인 660년 7월 금강을 거슬러 올라간 당군은 신라군과 연결하여,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7월 18일 의자왕을 체포하였다. 당군의 상륙 작전이 시작된 단 10일 만에 백제가 멸망하였다. 같은 해 10월 16일 장안에 감금되어 있던 倭使일행이 낙양으로 送致되었다. 그곳에서 거행될 중요한 의식을 참관할 터였다. 4차 견당사가 귀국하여 倭國王에게 제출한 復命書인 伊吉連博德書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1월 1일 장군 蘇定方 등에게 잡힌 百濟王 이하 太子隆 등 여러 王子 13인, 大佐平 沙宅千福 國弁成 이하 37인, 모두 50명이 朝堂에 나아갔다. 급히 天子가 계시는 곳으로 갔다. 천차는 은칙을 내리고, 눈앞에서 석방하였다.”⁶⁶⁾

이 獻俘儀式을 주관한 唐高宗은 의도적으로 倭使일행에게 그 광경을 목격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제는 자신의 명(璽書)을 默殺한 백제왕과 그 가족들의 최후를 귀국하는 사절을 통해 倭朝廷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⁶⁷⁾

65) 『日本書紀』卷26, 齊明天皇 5年(659) 7月 戊寅《三》“〈伊吉連博德書曰。…략…十二月三日。韓智興廉人西漢大麻呂枉讒我客。々等獲罪唐朝。已決流罪。前流智興於三千里之外。客中有伊吉連博德奏。因即免罪。事了後。勅旨。國家來年必有海東之政。汝等倭客不得東歸。遂逗西京。幽置別處。閉戶防禁。不許東西困苦經年。”

66) 『日本書紀』卷26, 齊明天皇 6年(660) 7月 丙 “伊吉連博德書云。庚申年八月。百濟已平之後。九月十二日。放客本國。十九日。發自西京。十月十六日。還到東京。始得相見阿利麻等五人。十一月一日。爲將軍蘇定方等所捉百濟王以下。太子隆等諸王子十三人。大佐平沙宅千福國。弁成以下卅七人。并五十許人奉進朝堂。急引趨向天子天子恩勅。見前放著。十九日。賜勞。廿四日。發自東京。”

67) 651년 唐高宗은 백제왕에게 璽書를 내려 신라를 침공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舊唐書』卷199上, 東夷 百濟傳. “高宗嗣位, 永徽二年, 始又遣使朝貢. 使還, 降璽書與義慈曰:… 王所兼新羅之城, 並宜還其本國, 新羅所獲百濟俘虜, 亦遣還王. …王可深

왜국의 한반도 통일전쟁 개입은 이러한 通報가 가져온 반발이 아닐까. 귀국한 사절을 통해 백제의 의자왕과 그 자식들, 고위 대신들이 만인이 바라보는 앞에서 낙양의 朝堂에 獻俘되는 소식을 전해들은 왜국의 위정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다음은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도 백제 의자왕처럼 唐高宗의 璽書를 목살했던 적이 있지 않는가. 倭國은 백제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투입했으며, 663년에 가서 전국력을 白村江에 쏟아 부었다.⁶⁸⁾

V. 맺음말

倭國은 동아시아 동변에 고립된 섬나라였지만, 三國의 사절들을 통해 중국의 정세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623년 신라사절 편에 귀국한 大唐留學生 惠日이 당과의 교류를 건의했지만 왜 조정은 무관심했다. 唐高祖가 통치하던 당제국은 富國이라 할 수 없었다. 참혹한 내란을 막 수습하는 단계였던 당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라고 할 수 없었다.

고구려와는 거의 동등한 관계였고, 東突闕에게는 절대약자였다. 626년 형과 동생을 죽이고 즉위한 唐太宗도 東突闕의 명에를 상속받았다. 그해 東突闕이 장안 부근까지 쳐들어오자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던 唐太宗은 막대한 재물을 주고 치욕적인 강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다. 627년 薛延陀와 回紇이 반란을 일으켰고, 東突闕 頡利可汗의 조카 阿史那欲谷 設이 이끄는 군대를 격파했다. 거기다 초원에 수십 년 마다 찾아오는 天災(dzud)가 일어났다.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갔다.

東突闕 자체붕괴를 직감한 고구려가 당에 줄을 섰다. 628년 9월 營留王(建武)이 사신을 파견하여 封域圖를 바쳤다. 630년 2월 李靖이 陰山에서 頡

思朕言，自求多福，審圖良策，無貽後悔。”

68) 徐榮教, 「白江戰鬪와 新羅」, 『歷史學報』, 226, 2015, 43-73쪽.

利可汗의 주력을 격파하여 東突厥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3월 唐太宗은 ‘天可汗’이 되어 중국 天子가 소유목세계를 아우르게 되었다.

630년 3월 奈良에 도착한 고구려 사신은 당이 유일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소식을 倭國에 전했다. 倭國 상층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막 즉위한 舒明天皇이 같은 해 8월에 1차 遣唐使를 파견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23년의 공백이 있는 후 倭國은 갑자기 2차례에 걸쳐 당에 사신을 파견한다. 653년·654년 2·3차 遣唐使가 그것이다. 649년 5월 26일 唐太宗이 죽고 아들 李治가 즉위했다. 唐高宗은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카리스마는 상속받을 수 없었다. 주변 강국들이 일어섰다.

649년 10월 토번왕 승젠간포가 당제국의 실권자였던 長孫無忌 등에게 사신을 보내 不忠한 짓을 하면 장안에 군대를 보내 토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서북 초원에서 몸을 일으킨 阿史那賀魯는 1년 6개월 만 西突厥의 재통일을 완수했고, 타림분지와 파미르 고원을 넘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고구려 역시 동몽골의 시라무렌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자 당은 주변 나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베풀어 상황을 호전시키려 했다. 唐高宗은 토번에게 雜綵 3천단과 養蠶 종자 및 술·땃들·종이·먹을 만드는 장인들을 보내 주었다. 西突厥과 가까운 龜茲國에도 자치권을 주고 물자를 지원했다. 고구려 배후에 위치한 倭國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터였다.

당이 주변나라에 유화책으로 돌아서자, 倭國의 孝德天皇은 호기를 놓치려고 하지 않았다. 653년 夏4월 倭國은 2차 遣唐使를 파견했는데 상당수의 학문승과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당 문화와 학문을 대폭 흡수하려는 孝德天皇의 의지가 보인다. 2차 遣唐使는 황제가 내린 다량의 문서와 보물을 가지고 귀국했다. 孝德天皇의 예상이 적중했다.

孝德天皇은 이듬해인 654년 2월에 다시 3차 遣唐使를 곧바로 조직하게 하여 파견한다. 654년 12월 장안에 들어가 唐高宗을 만났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唐高宗의 璽書를 받았다. 신라가 백제·고구려로부터 침공을 받아 위

급하니 가까이 있는 倭國이 군대를 보내 구원하라는 것이다.

唐高宗의 璽書는 고구려와 백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당 측에 가담하라는 메시지였다. 655년 8월 戊戌朔 倭國에 귀국한 사절은 齊明天皇에게 唐高宗의 倭國出兵援新羅璽書를 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150명에 달하는 백제의 대규모 사절단이 이 도착해 있었다. 그해 또 다시 100여 명에 달하는 백제의 사절이 倭國을 찾았다. 璽書에 대한 관심은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56년 8월 8일 고구려는 81명에 달하는 사절단을 倭國에 파견하였다. 副使의 이름 伊利之는 淵로 읽을 수 있다. 그는 연개소문과 혈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사절 단장이 보장왕의 공식적인 국서를 倭國에 전달했다면, 伊利之는 고구려의 실질적인 지배자 연개소문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倭國의 반응이 즉시 나타났다. 바로 다음 달에 倭國의 답사가 고구려에 파견되었다.

倭國은 황제의 뜻과 배치되는 길로 가고 있었다. 그것은 唐帝國으로 하여금 倭國에 대한 적개심에 눈을 뜨게 했고, 결국 신라와 倭國의 관계도 냉각되었다. 657년 신라는 倭國의 遣唐使의 중개를 거부했다.

그해 12월 중대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었다. 蘇定方이 이끄는 당군이 西突闕 주력을 격파하고 다시 유일강대국의 자리에 복귀했다. 658년부터 당은 西突闕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배기구를 설치했다. 659년 4월 김춘추는 당에 청병을 했고, 唐高宗은 그해 연말에 백제파병을 결정했다.

동시기에 倭國의 4차 遣唐使가 장안에 나타났다. 당의 세계제패 소식을 접한 것으로 보이는 그들은 倭國 북쪽의 蝦夷國使를 데리고 왔다. 倭國은 당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한 것이다. 659년 10월 30일 처음으로 蝦夷身面을 본 唐高宗은 기뻐하면서도 신기해했다. 하지만 12월 3일 직후 칙지가 내려와 倭國 사절들은 장안에 억류되었다. 당은 왜국사절이 귀국길에 경유할 수도 있는 백제에 나당연합군의 침공 첩보를 전달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다자간의 등거리외교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倭國은 어느 한편에 일방적

으로 줄을 설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 고구려·백제와의 오래된 관계를 청산할 수 없었고, 상황변화에 따라 당과도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싶어 했다. 당과 연결을 돕던 신라와도 마찬가지로였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대립구조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던 倭國은 현상유지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660년 당이 三國 통일전쟁에 개입하는 전란의 시대가 도래 했고, 倭國은 여기에 휘말리게 된다. 7월 당군이 백제에 상륙한지 10일 만에 의자왕과 그 가족들을 사로잡고, 귀족과 그 밖에 1만 이상의 사람을 잡아갔다. 이 소식은 倭國에 곧바로 전해졌고, 비상사태가 발령되었다. 병사들을 서북 경계 진을 치게 하고, 성책을 수리하여 山川을 나누어 막게 하였다. 병력 10만 이상을 배로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제국의 군대가 백제에 주둔해 있다는 그 자체가 倭國은 부담스러웠다.

唐高宗이 親任한 낙양 朝堂의 獻俘儀式에 백제왕과 그 가족들이 재물로 바쳐지는 광경을 목격한 4차 遣唐使가 귀국하였고, 倭國王에게 복명하는 자리에 모인 위정자들은 백제의 왕실의 최후 모습을 사절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을 것이다. 백제 다음은 자국이라 여기게 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물자와 병력을 백제에 투입하게 되었고, 663년 全國력을 기울인 白村江戰鬪에서 羅唐聯合軍에 의해 패배하게 된다.⁶⁹⁾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69) 본고를 작성하는데 있어 동국대학교 사학과 정병준 교수의 지도에 힘입은 바 크다.

참고문헌

『冊府元龜』 『唐會要』 『舊唐書』 『新唐書』 『日本書紀』 『資治通鑑』 『全唐文』 『三國史記』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연민수外, 『譯註日本書紀』 3, 동북아재단 2013.

羅幸柱, 「倭國의 第3차 遣唐使와 百濟新羅」 『百濟研究』 58, 2013.

서영교, 「蘇定方の 長槍歩兵과 對西突厥 전투」 『中國古中世史研究』 15, 2006.

서영교, 「항산벌 결전 직전의 국제정세」 『군사연구』 13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1.

徐榮教, 「白江戰鬪와 新羅」, 『歷史學報』, 226, 2015.

徐榮教, 「『新唐書』 日本傳에 보이는 唐高宗 令出兵援新羅聖書의 背景」 『歷史學報』 237, 2018.

이재석, 「7세기 동아시아 정세에서 본 上宮王家 멸망사건」 『歷史學報』 228, 2015.

李眞善, 「唐 前期 安西四鎮의 設置와 變化樣相」 『東洋史學研究』 141, 2017.

이강래, 「경험과 역사」 『韓國史研究』 173, 2016.

정병준, 「吐蕃의 吐谷渾 併合과 大非川 戰鬪 : 唐朝의 韓半島 政策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218, 2013.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東洋史學研究』 143, 2018.

關晃, 「大化改新」 『岩波講座日本歷史』 2, 岩波書店, 1962.

鬼頭清明, 『日本古代國家의 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976.

森公章,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 吉川弘文館, 2008,

森公章, 『遣唐使의 光芒』 角川選書, 2010.

西本昌弘, 「東アジア의 動亂と大化改新」, 『日本歷史』 468, 吉川弘文館, 1987.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1971,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 and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Japanese Envoys to China(630-659)

Seo, Young-kyo

Although Japan was an island nation, it was aware of China's change of situation through the missions of Goguryeo and Baekje. In 623 students who studied in China suggested exchanges with China, but Japanese rulers were indifferent. At that time, China was not an economic or military power. In 626, Dang Tae-jong also bought peace by giving a large fortune to Dongdol-dong.

The change came suddenly. In 627 a rebellion broke out against the Dongdol stream, and a number of livestock died in the event of a dzud. In February, 630, the Chinese military defeated the main force of Dongdol, which weakened. Koguryo envoys reported the news to Japan in March, 630. This is why Japan sent its first envoy to China that year

In 631, Japanese envoys returned to Japan and Chinese envoys came to Japan with them. But they had an argument with the Japanese king, and the relationship was severed. Twenty-three years later, the Japanese government sent envoys to China twice.

On May 26, 649, Tang Tae-jong died. His son, Tang Koajung, had no charisma. Many powerful nations have turned against China. In October of 649, Tibet threatened to invade China, and Asana-Haro completed the reunification of the Western TÜRK. Koguryeo also encroached on the East Mongolia area.

Then, China tried to improve the situation by offering cultural

benefits to neighboring countries. The Emperor presented Tibet with enormous supplies and engineers. He also donated goods to the Far West countries, Kucha. Japan, which is located behind China's enemy Koguryeo, would also benefit from the Emperor.

In April 653, Japan dispatched envoys to China. They returned home with a large collection of documents and treasures from the emperor. In February 654, the Japanese government sent envoys to China again. The Japanese envoy, who met the emperor, received an unexpected letter. As Silla was invaded by Baekje and Goguryeo, a nearby Japanese kingdom was urged to send troops to save.

However, Japan ignored the order of the Chinese emperor and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Goguryeo and Baekje. The Chinese emperor opened his eyes to hostility toward Japan, and Silla's relationship with Japan was also cooled.

In December 657, there was a major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Chinese army defeated the West Turk. Tang Dynasty became the sole superpower again. In April 659, King Silla made a military request to China, and the Chinese emperor decided to dispatch troops to the Korean Peninsula at the end of that year. Later that year, Japanese envoys appeared in the Chinese capital. Immediately after December 3, the Japanese envoys were put in jail on orders from the emperor. They had to prevent the discovery of China's plan to invade Baekje.

keywords: Tai-tsung, Kao-tsung, Kao Biao, diplomatic documents from the Chinese Emperor, Koudoku Tennou, Yamato, Japanese Envoys to Tang China

